



오봉국 박사 회갑기념 한국가금발달사 봉정

— 10월 5일, 서울농대 대강당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주관 —

梧堂 吳鳳國博士가 지난 10월 6일(음력 8월 22일)로 회갑을 맞았다. 이보다 하루앞서 10월 5일(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대강당에서는 오봉국 교수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현욱교수)의 주관으로 회갑기념출판물 ‘한국가금발달사’의 봉정식이 있었다.

4백여명의 학계, 업계, 친지, 동문, 후학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출판물 봉정식은 임 경순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 설하축산국장의 약력보고, 오 재정전무(홍성사료)의 ‘한국가금발달사’ 봉정, 기념품 증정, 축사(서울농대 유 순호학장, 고려대 이 재근 명예교수) 오 봉국박사 답사, 경과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별도의 장소에서 축하연이 있었다.

오 봉국교수는 학자로서 품위와 덕망이 높은 인격, 굳은 의지와 불타는 정열, 창의적인

노력, 헌신적인 봉사로 오늘의 양계산업을 발전시킨 실질적인 주역으로 양계인 뿐만 아니라 전 축산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탄생의 산파역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교수님은 1925년 10월 29일(음력 8월 22일)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보통학교를 마친후 만주 국립봉천농업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1952년 2월에 졸업하고 본격적인 축산학 연구를 위해 모교의 조교로 남게되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육종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956년 3월 서울대 대학원에서 농학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원가금학과에서 수확가금육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1957년 농학석사학위 취득), 1965년 호주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에 유학 1968년 9월 「초파리에 있어서 Hairy Wing 형질의 우성으로의 선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오박사는 국내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계개량사업을 위해 우수한 육종소재를 확보해야한다는 일념에서 당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육종개발한 1대잡종 작출용 근교계통원종계 백색레그혼종, 뉴햄프셔종, 백색프리마스룩종 등 3 품종을 국내에 도입 근대적 양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양계기술의 보급을 위해 1962년도부터 장안동 양계강습회를 개최하고「새로운양계」등의 책을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박사의 산학협동의 뜨거운 정열은 오늘 전양계인의 유일한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의 창립(1964. 12)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이후 1968년 제 4대 가금협회 회장에 취임한 후 전국적으로 새로운 양계기술의 정기적인 보급과 정보전달,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월간양계지를 창간(1969년 11월)하게 되었다.

축산불모지의 이땅에 양계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 뿐만 아니라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를 조직해 국제학술교류의 확대로 국위선양과 국내양계업의 세계적 발돋움에 기여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가금학자로 미국가금학회회원, 한국육종학회장, 한국농업과학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도 세계가금학회 평의원,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 회장, 한국축산학회 고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평의원, 한국가금학회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제학술행사는 호주·대양주지역 축산학회(1967년 호주), 국제분자유전학회(1968년 호주), 국제가금산업발전 세미나(1972년 호주), 15차 세계가금학회(1977년 미국), FAO 가축개량회의(1977년 스리랑카), 16차 세계가금학회(1978년, 브라질), 아시아·대양주 가축개량회의(1979년 일본), 제17차 세계가금학회(1984년 필란드) 등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하였다.

이러한 연구활동 및 산학협동의 많은 업적으로 오박사는 학자로서는 최고명예인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덕망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되는 학술원정회원에 축산업계를 대표해 임



△ 봉정식에서 사모님(이춘자 女史)과 함께

명된 바(1981. 8)이다.

또 지난 82. 4. 21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축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축산업 발전과 국산종계육종개발을 통한 양계산업발전에 기여와 후진양성의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양계업계의 보배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박사의 학문연구의 고귀한 진가를 인정해준 결과라 하겠다.

이밖에도 한국명예상 위원회의 광복30주년기념 공로표창(1975), 한국축산학회 학술상(1975), 양계협회가 제정한 양계산업대상 산학협동부문(1978) 등을 수상하였다.

오박사는 1952년 6월 서울 농대 조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축산학과교수로 봉직하며 28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이들이 끊임없는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대교무과장, 축산학과장, 연구교수선정위원회 위원, 부설농업개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FAO한국협회 축산전문위원, 상공부 특허국 축

산분야심사위원, 농개공개발자문위원, 축협중앙회 지문위원, 농수산부 정책지문위원, 농진청 경임연구관, 서울대 농학도서관장 등 실로 팔목할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사는 연구업적과 대학원생을 육성배출한 업적외에 인생의 체험에서 얻은 생활철학으로 '산학협동이나 공동연구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명예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봉사한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의 생활을 유쾌히 보내며 고전 음악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실과 정직한 생활을 신조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오봉국교수는 회갑을 맞아 제 1의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양계분야 아니 축산업계를 위한 열정을 더해 제 2의 인생을 헌신적으로 가일층 봉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더욱 건강하시어 교육, 연구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斗>